

●●● 조규진 한국양계농협 상임이사

투명경영으로 양계조합 거듭나고 있다



▲조규진 조규진 상임이사
전)동민신문사 전문
현)한국양계농협 상임이사

서울경기양계축협, 대구경북양계축협, 광주 전남양계축협 등 3개조합이 통합한 한국양계농협이 지난 11월 통합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통합조합의 책임경영을 맡고 있는 조규진 상임이사를 만나 그 동안의 경영 현황을 들어보았다.

합병 원인 파악과 단계적 정상화 방안 추진

지난해 12월 9일 한국양계농협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된 조규진 상임이사는 농협중앙회에서 30여년 동안 배우고 닦은 근무경험을 살려 통합 조합에 쏟아 부어 경영 정상화를 위해 힘쓰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취임 초기 조합의 경영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부실 규모가 커서 당황스러웠다는 조규진 상임이사는 합병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합원·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업무처리에 원칙이 없다는 점과 조직의 상하를 불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자세가 결여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책임경영자로서 조합 경영개선을 위해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고칠 수 없으므로 우선 농가가 생산하는 계란을 잘 팔아주는 것, 투명한 업무처리, 노사와 지역간 화합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업무처리 투명성과 책임경영 기틀 마련

조규진 이사는 2004년을 경영 정상화의 해로 정했다. 먼저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첫째, 전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본부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경제 및 신용 업무 현황을 한번에 파악하고 전자메일로 업무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난가공공장, 유통센터, 경제채권 관리를 볼 수 있고, 심지어는 200여개 계란판매장의 품목을 매일 체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주문과

배송의 전산화가 이루어져 세부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게 된 셈이다. 두 번째는 권한을 준 만큼 책임도 있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책임경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분기별 책임자 심사분석회의를 거쳐 사업진도를 분석하고, 참석자 모두의 의견을 제시받아 사업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다.

경제사업 효율성 진단 전문 컨설팅 실시

조규진 상임이사는 판매사업에서 계란집하장이 수집하여 분산하는 기능만 하고 있던 것을 유통 기능을 강화한 유통센타로 거듭날 계획을 갖게 되었다. T/F팀을 구성하여 경제사업 중심으로 매주 토요일에 모여 주제를 정하여 회의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소재목을 두어 방안을 제출하게 하였다. T/F팀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판매사업의 활성화와 경영효율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증된 전문 업체로부터 경영진단 컨설팅을 받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안전성을 담보한 상품성이 뛰어난 계란유통, 노동생산성 제고,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북부집하장과 남부집하장의 시설, 조직, 제반여건으로는 한계 상황에 다다랐으므로 현대적인 새로운 유통센타 신축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게 되었다.

현대적인 유통센타 신축 추진에 있어 직원과 조합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유통센타 신축 비용의 정부 자금지원과 기존의 북부와 남부유통센타를 이용하던 지역농가의 이해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규진 상임이사는 판매사업 활성화와 유통센타 경영효율을 위해서는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가야만 한다는 T/F팀과 전문 컨설팅의 진단이 옳다는 신념으로 이해와 설득으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앞으로 계란가공사업 부문에 중점을 둘 방침

이다. 가공사업은 중간납품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로 변화를 모색한다는 목표 아래 전문적인 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한다.

노사갈등 해소로 조합원 신뢰구축

조합통합에 따른 조합과 직원노조와의 갈등을 푸는 것이 조합 경영개선의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한 조규진 상임이사는 직원과 조합원의 입장에서 꾸준한 타협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응어리가 풀렸다고 밝혔다.

한 예로 조합이 구조조정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농협중앙회와 이행계약약정서(MOU) 작성과정에서 노조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MOU에 동의했다는 점과 올해도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되었다는 것은 노사간 화합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였다. 조합의 투명경영과 운영 공개를 위해 계간지 “우리조합소식”을 발간하고, 연 1~2회 대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계란공판장 개설·가축공제 확대에 조합과 협회가 적극 나서야

조규진 상임이사는 양계산업이 개방화시대에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양계조합과 양계협회가 공동으로 세미나,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한 계란공판장 개설을 공론화하고, 수급조절을 위한 계란 소비홍보 자조금 기초를 빨리 마련하고, 질병에서 해방할 수 있는 가축공제 보장이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자고 제의하였다. 또한 조합원은 안전식품 생산과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한국양계조합은 경영정상화 조기달성과 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생산물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통에 전 직원이 힘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 | 김충준 과장) **양계**